

‘강철대오’ 야권...탄핵 후 로드맵은 제각각

과도내각 조기대선 집중이나
총리교체로 국가 재정비나
내부 정계개편 시도
주도권 다툼 이어질 가능성도

야권이 오는 9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향해 ‘강철 대오’를 형성하고 있지만 탄핵 이후 로드맵에 대해서는 해법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 이후 과도내각을 ‘관리형’으로만 마무리하면서 조기 대선에 집중할지, 아니면 탄핵 전에 국무총리를 교체해 적극적인 국가 재정비에 나설지 등에 대해서는 야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탄핵 이후 개헌 주장이 본격화하면서 야권 내부 정계개편 시도나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방지한다면 야권 역시 무책임하다는 비난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수권 세력으로서 혼란을 체계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야권은 9월 이후의 일은 연두에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탄핵안 가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오직 탄핵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은 따로 로드맵을 가진 건 아니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야 정치일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탄핵 이후 정국 수습책을 놓고 야권 내부의 이견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행체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30야 회동... “잘 해 봅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야 회동... “잘 해 봅시다”

민주당 내에서는 황교안 대행체제를 수용하는 대신 총리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관리형 내각’을 구성해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주력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는 대선 잠룡 가운데 민주당 주자들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전에서 조기 대선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셈법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너무 속내를 드러내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말조심을 하고 있는 분위기도 읽힌다.

반면, 국민의당에서는 총리 교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정 시스템 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안검사 출신인 황 총리가 역사적 국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모욕”이라며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합의하면 총리를 바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의당 정 의원은 “탄핵안이 9월 오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안에 황 총리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은 아무래도 제3지대에서 정권 창출을 노리는 국민의당에 불리한 구

도라는 것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추 대표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과 오찬간담회에서 제시한 ‘국민추천 총리제’가 주목받고 있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민 추천 총리’를 국회가 동의하고, 그다음에 황 총리가 물러나면서 대선 일정 등을 잡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촛불 민심, 즉 여론이 바라는 국민 추천 총리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다 새누리당의 반발도 불가피하고 총리 교체는 결국 개헌론으로 번질 수 있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종인 “탄핵 후 새 정치세력 등장”

6월말쯤 대선...반기문 중심 세력 형성·개헌도 거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과 관련, “문제없이 가결될 것”이라며 “그 후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 집중’에 출연, 이 같이 전망한 뒤 “헌법 재판소에서 인용 역시 크게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6월말쯤 대선을 치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탄핵 이후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새누리당은 지금 형태로 계속 갈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보수진영이 나름대로

하나의 세력을 또 형성하려 할 것”이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에 들어오면, 그를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특히 “패권세력이 집권했을 때 나오는 패단이 대통령들의 실패 원인 중 하나였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이 탄생하려면 패권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표는 “탄핵 이후에는 개헌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이라며 “국민이 재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에 촛불시위를 벌이는 것만 믿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무성 “‘文, 탄핵후 즉각 사임’ 주장 반헌법적”

“조기 대선 욕심” 직격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6일 ‘탄핵 후 대통령 즉각 사임’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본인의 권력 욕심만 생각하는 지극한 야심이자 독선적인 발상이며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문 전 대표가 촛불시위를 국회로 끌어들이 마지 본인의 힘으로 탄핵을 성사시켰다는 공치사를 하려고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탄핵이 이뤄질 때 대통령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면서 “정치권은 현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한 해법과 대안을 찾는 데 나서야 옳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을 다해야지, 국민 분노에 편승하고 부추기는 시위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 전 대표는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을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탄핵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은 헌법을 일탈한 방식으로 ‘탄핵 후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본인의 권력 추구만 생각하는 독선의 정치, 반헌법적이며 국민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무책임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민의당, 새누리 연대설에 ‘발끈’

“야 3당 공조 이탈 했다는 정병국 발언 음해”

국민의당이 탄핵정국에서 불거진 새누리당과의 연대설에 대해 반발하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새누리당과의 연대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선긋기에 나섰다. 특히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국민의당을 음해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어막을 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일부에서 지난 2일 탄핵안 표결을 반대한 것을 놓고 국민의당이 탄핵에 반대한 것처럼, 새누리당과 야합한 것처럼 우리를 곤경에 몰아넣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의 연대설의

진원지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의 최근 TV조선 인터뷰를 지목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4월 퇴진론’에 국민의당이 동의해 ‘2일 탄핵론’을 구축한 야 3당 공조체제에서 이탈했다는 취지로 정 의원이 발언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정 의원이 야 3당 공조가 가장 필요한 중대한 시기에 우리를 음해했다”면서 “정 의원의 발언 이후 온라인상에는 ‘봐라, 역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야합한다’, ‘박지원이 야합했다’는 말이 들끓었다”고 전했다. 이어 “촛불의 힘으로 탄핵절차가 달리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국민의당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정병국 발언 음해”

국민의당은 “정병국 발언 음해”

박대통령 태반·백옥 주사 맞아...최순실·차은택은 ‘보안 손님’

靑 의무실장 “미용 목적 아냐...세월호 당일 진료 없어”

국정조사 기관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태반·백옥·감초주사를 맞았다는 증인이 처음으로 나왔다. 또 최순실·차은택씨가 박 대통령의 사적(私的) 출입자,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분류돼 청와대 경호실의 일반적인 관리를 받지 않고 청와대를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와대 기관보고에 출석, 태반·

백옥·감초 주사가 대통령에게 처방된 게 맞느냐는 새누리당 정제원 의원의 질문에 “사용된 것 맞다”며 “이 가운데 태반주사는 청와대 내에서 박 대통령만 맞았다”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이 “백옥주사는 명백하게 안티에이징(노화방지) 및 피부 미용 목적이 다. 그 의 목적은 없다”라고 주장하자 이실장은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지는 않았다”며 “(백옥주사는) 대표적인 항산화제 중 하나이고 면역 및 건강관리를 위해 빠른 회복을 위해 처방되고 있는 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안티에이징 등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 제가 아는 한 분명히 진료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이영서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적 출입자에 대해서 기록만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이들이 왔는지 검토하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질문에 “그런 건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청와

대 방문자나 차량 출입 관리 업무는 경호실 소관이지만 박 대통령의 사적 출입자인 보안 손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대통령과 사적 만남을 갖는 상황에서 경호실 업무가 작동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지적엔 “아니다”면서도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차장은 민주당 박병계 의원이 ‘차씨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은 밤 청와대에 가서 있다 나온 적이 있다고 얘기했다. 최씨와 차씨가 보안 손님인가’라고 묻자 “보안 손님”이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p>경매</p> <p>골프장</p>  <p>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p>	<p>경매</p> <p>상가건물</p>  <p>감정가 12억2천만, 최저가 12억2천만 무안군 삼향읍 / 대지 126평, 건물 289평 / 남악신도시내 위치</p>	<p>교육 연구 시설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6억 2천만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p> <p>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접 / 자동차세차기 / 3기 6구</p> <p>숙박시설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p> <p>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4억 5천만, 최저가 4억 5천만 남구 주월동 / 총 4층 / 대지 71평 건물 177평 / 4층 안집 / 1종일반주거지역 / 코너 / 10m도로접</p>
<p>매매</p> <p>오피스텔</p>  <p>매매가 42억 조선대공대입구 / 10층 / 신축 / 대지 183평, 건물 600평</p>	<p>매매</p> <p>상가건물</p>  <p>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p>	<p>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p> <p>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p> <p>연립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p> <p>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p> <p>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p> <p>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p>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주성**